



닳고싶고 되고싶은 과학기술인 10인

청소년 역할모델로 나선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계로의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학술연구, 산업, 사회문화의 3개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뛰어난 인품과 경력을 가진 과학기술인 10명을 선정, 발표하였다.

1년간 과학기술 홍보대사 담당

학술연구분야에서 국양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교수, 문대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백명현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 이영숙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이조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1세기프론티어사업단장이, 산업계에서는 홍지준 (주)코캠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백우현 LG전자 (주) 사장, 이용경 (주)KT 대표이사가,

사회문화계에서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과 최재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 중 국양 교수는 주사투과현미경의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한국 나노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고, 진대제 장관은 반도체 분야에서 최초로 16DRAM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심 인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최재천 교수는 저서 '개미제국의 발견'에서 과학적인 탐구와 창의적인 서술로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과학기술분야를 쉽게 이해토록 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선정된 과학기술인들은 그 연구활동, 업적, 생활모습 등은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소개, 홍보되

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강연을 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아일보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2002년부터 시작돼 올해가 3회째이다. 선정과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 287명 가운데 32명을 선발한 뒤 12명의 선정위원회가 학술연구부문 5명, 산업부문 3명, 사회문화부문 2명을 최종 선정했다.

'닳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 기념식은 2004년 4월 26일(월) 오후 6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과학기술부 장관 등 각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㉔

글_류통은 기자 teryu@kofst.or.kr